

나이지리아 대선 결과 및 향후 전망

□ 나이지리아 선거관리위원회, 인민민주당(PDP)의 우마르 야르아두아 후보 대통령 당선 발표

- 나이지리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4일, 약 6천만명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36 개주 약 12만 곳의 투표소에서 지난 4월21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인 인민민주당(PDP ; Peoples Democratic Party)의 우마르 야르아두아 후보가 전체 유효투표의 70%인 2천 460만 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밝힘.
- 야르아두아 후보는 나이지리아 북부의 카치나(Katsina) 태생의 이슬람교도로, 1999년 인민민주당 후보로 주지사선거에 나서 당선된 데 이어, 2003년 연임에 성공한 바 있음.
- 나이지리아 국내에서 교육을 받은 화학교수 출신인 당선자는 주지사 재임기간 중 과세제도 개혁을 통해 주정부 재원을 충실히 확보하여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던 주 재정을 흑자로 전환시켰으며, 주지사 선거 사상 처음으로 재산을 공개하고 퇴임하는 시기에 또 다시 재산을 공개하겠다고 천명하여, 부정부패로 얼룩진 나이지리아 정가에 새바람을 일으킴.



- 성명 : Umaru Yar'Adua
- 출생년도 : 1951년
- 학 력
 - Master degree in Chemistry from the Ahmadu Bello University, Zaria
- 주요경력
 - 1999~현재 : Katsina 주지사

- 이른바 Big Three로 불리며 3강 경쟁구도를 형성했던, 전인민당(ANPP : All Nigeria People's Party)의 무하마드 부하리 후보와 행동의회당(AC : Action Congress)의 아티크 아부바카르 후보(현 부통령)은 각각 660만 표(19%)와 260만 표(7.4%)를 득표하는데 그침.

※ 상기 득표율은 4. 24일 현재 나이지리아 선관위 잠정 발표치이며, 최종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 2007년 4월, 나이지리아 대통령, 주지사, 국회의원 선거 개요

구 분	선거일	비 고
주지사	4. 14	- 36개주 주지사 선출 - 현재 여당인 인민민주당(PDP) 31 개주 점유
대통령	4. 21	- 선거인단 : 약 60만명 (투표소 12만 개) - 후보 등록 : 24명 - 당선자 결정 : 최다 득표자는 36 개주 중 최소 24 개주에서 25% 이상 득표 필요, 해당자 없을시 결선투표 시행
국회의원	4. 21	- 대통령 선거와 동시 실시 - 하원의원(House of Representative) 360명 선출 - 상원의원(Senate) 109명 선출

□ 야당측,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선거결과 무효 주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결과 발표에 대해 야당측은 금번 선거를 총체적인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함. 다만, 지지자들에게 거리 시위를 벌이도록 촉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짐.
- 선거 당일, 행정 수도 아부자에 위치한 선거관리 위원회 본부에 차량 폭파 테러 기도가 발생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중부 나사라와주 에서는 투표용지를 운송하는 경찰관들이 습격을 당해 수명이 사망하는 한편, 야르아두아 후보 및 부하리 후보의 고향인 북부 카치나주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청년 시위대에 경찰이 발포하여 최소 4명이 사망하는 등 선거기간 중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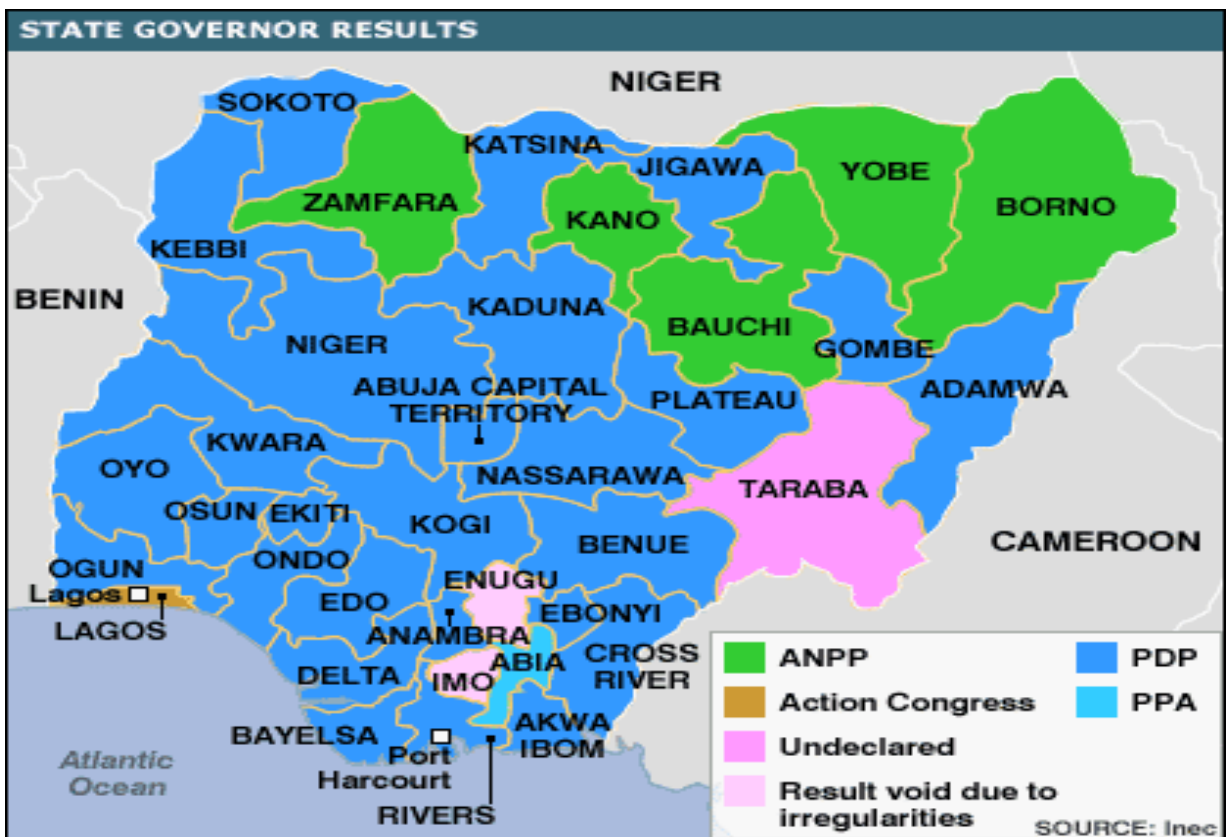
- 아울러, 3강 후보중 한 명인 행동의회당의 아부바카르 후보는 비리 혐의에 대한 대법원 무죄판결이 투표일 불과 5일전 확정되어 대통령 후보자격이 복원됨에 따라, 새로운 투표용지 작성 및 수송 작업이 지연되어 일부 투표소의 경우 투표 개시가 늦어지거나 동일자에 시작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함.
- 금번선거에 대해, EU 선거 감시단은 '신뢰할 수 없는 선거'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흠결이 있는 선거'라고 언급하고 있음.

□ 선거 의미와 향후 전망

-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많은 1억 4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 6위의 석유 생산국인 나이지리아의 금번 대선은 나이지리아 뿐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 민주주의 발전의 시험대로 주목받고 있음.
- 나이지리아는 196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장기간 지속되어온 군사독재를 종식시키고, 1999년 현 오바산조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취임하였으며, 2003년 재선에 성공하였음.
- 오바산조 대통령은 한때 아프리카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불리며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의장을 역임하고, 나이지리아의 발전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문제점인 부정부패와 막대한 외채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고 있음.
- 그러나, 최근의 막대한 오일머니 유입에도 불구하고 전력, 도로, 급수 등 필수 경제 인프라 개발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고 물가는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은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는 등의 현 경제 여건에 대해 나이지리아 국민들 사이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 오바산조 대통령은 재선 임기의 만기가 다가오자 2007년 초, 개헌을 통해 나이지리아 헌법의 대통령 3선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 재집권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야당의 반발로 무산되었음.
- 이후, 중앙 정치무대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야르아두아 후보를 여당 대통령 후보로 전격 지명하여, 자신의 최대 정적인 아부바카르 현 부통령과, 부하르 후보를 견제함.

- 야르아두아 후보는 자신의 친형인 세후를 통해 오바산조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세후는 지난 1970년 오바산조가 쿠데타로 집권했을 당시 서열 2위였으며 이후 실각한 오바산조와 함께 투옥되어 옥중에서 숨짐.
- 오바산조 대통령은 조용하고 유약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야라두아 후보를 통해, 퇴임 이후에도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 실제로 야라두아 후보가 만성적인 신장질환을 앓고 있고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선거유세를 취소하고 돌연 독일로 날아가 건강검진을 받는 바람에 한때 사망설이 돌기도 하였음.
- 최근의 오바산조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민심 악화로, 전문가들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여당이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 여당이 총 36 개주 중 31 개주를 점하고 있는 주지사 선거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된 바 있음.
- 그러나, 지난 4월 14일 치러진 주지사 선거에서 여당인 인민민주당(PDP)은 이러한 예상을 깨고 재개표 등으로 선거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3 개주를 제외한 33 개주 중 26 개주에서 승리하는 예상 밖의 결과를 낳았음.

<그림> 2007년 4월 14일, 나이지리아 주지사 선거 잠정 결과



자료 : 나이지리아 선거관리위원회(INEC)

- 금번 주지사 선거결과를 살펴보면, 여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기독교 중심의 남부 지역 뿐 아니라, 이슬람 중심의 북부지역에서도 비교적 선전한 것을 알수 있음. 특히 여당인 인민민주당은 자신의 야르아두아 후보와 주요 경쟁자인 전인민당의 부하리 후보의 출신지인 카치나 주의 승리와 석유생산 중심지 포트하커스를 포함하고 있는 리버스 주의 승리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
- 향후, 인민민주당과 야라두아 당선자가 5월 29일, 차기 대통령 취임일 까지 야당의 재선거 주장으로 불거질 혼란을 원만히 수습하고, 국회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오바산조 대통령의 정치적 후원과 지방 정권 및 의회의 협조를 바탕으로 새 정부는 강력한 경제개혁 및 부정부패 일소 노력을 안정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야당이 선거 무효소송 제기 방침을 천명하고 있고, 나이지리아 최대 민간 선거감시 그룹인 Transition Monitoring Group이 이번 선거가 국제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부정선거로 치러졌다고 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선거결과를 둘러싼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유광훈>